

“복된 기운, 코로나로 지친 마음 치유했으면”

도잠 최숙의 민화 초대전 ‘초월’...19일까지 갤러리 생각상자

우연히 접한 전통 민화 매력에 매료
교사 퇴직후 전업작가로 작업 매진
독창적 색채...‘양류관음도’ 등 선배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제 그림이 많은 이들에게 치유와 긍정적인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많은 이들에게 작은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전시가 열리고 있어 이목을 끈다.

동구 갤러리 생각상자(관장 주흥)에서 개막한 도잠 최숙의 작가의 첫 개인전이다.

전시에는 작가가 지난 6년 동안 그려온 28점의 민화 작품을 걸러 관람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민화는 예로부터 일상적인 소망을 담아 그린 그림으로 소박하면서도 멋스러운 특징을 지닌다.

특히 우리네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나무, 꽃, 동물 등을 소재로 삼아 친숙한 이미지를 갖는다.

그림마다 상징하는 의미가 다르고, 좋은 기운이 깃들여 있어 집안에서도 제일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며 지친 마음을 달래고 행복을 기원했다고 한다.

최 작가는 38년 간 학교 미술 선생님이로 아이들을 가르쳐 오면서 가슴 깊숙이 그림 작업에 대한 열망을 품고 있었다.

“퇴직을 앞두고 우연히 접하게 된 민화는 저에게 너무나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전통적인 형태의 그림을 그리다 보니 거기로부터 오는 디자인이나 선들이 완벽하다는 것을 느꼈죠.”

서양화를 전공한 터라 그의 민화 작품은 살아있는 듯한 붓터치와 화려한 색감의 조화가 인상적이다.

이러한 창작의 기쁨을 누리고자 작가는 교직 생활을 마치고 작업실로 출퇴근하는 전업화가의 길로 들어섰다.

“민화 작업을 하는 그 때 마음은 온전히 나만의 시간이라는 것을 체감하게 돼요. 이 세상의 시간이 아니라 초월의 세계로 진입하는 것을 느껴요.”



6시간 내리 쉬지 않고 작업에 몰두하다 보면 팔이 고목이 되고 성한 데 없을 정도지만, 일상에서 수행력으로 키워낸 집중력으로 거뜬히 이겨낼 수 있었다는 이야기다.

이번 전시의 주제 작품인 ‘양류관음도’는 치유의 꽃향기를 온 세상에 보내고 있는 모습이다.

날마다 붓다의 수행법으로 단련하고, 108배와 명상을 하고 잠은 붓으로 그린 그림은 그 수행력이 북돋아 신령스러운 기운을 담고 있다. 고집적인 민화 패턴을 본떠 그린 민화가 아닌 자신만의 채색기법을 통해 만들어진 양류관음상이다. 정병에 꽃힌 버들가지를 뽑아 손에 들고 구름 위에 선 관음보살을 그려냈다.

“지난 20여년 간 다닌 선원에서 봐왔던 관세음보살상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었어요. 분을 만들고 색을 칠하고, 1년 동안 정성을 다해 그린 만큼 각별한 애정이 묻어있는 작품이죠.”

부귀영화와 장수를 의미하는 모란, 풍만함과 화려한 색의 수국, 우리나라 꽃 무궁화가 피어있는 정원을 표현한 작품 ‘나만의 정원’에는 작가 특유의 생동감이 서려있다. 이외에도 전시회에서는 ▲김홍도의 ‘송하맹호도’ 속 호랑이를 그려낸 ‘맹호도’ ▲검재 정선 화첩에 감동받아 그린 ‘금강내산전도II’ ▲황축규를 키우시는 분께 씨를 받아 키우면서 완성한 그림 ‘황축규’ ▲길상, 장수, 다복을 상징하는 壽와 福자를 배경으로 한 백자 그림 ‘백자청화매죽문항아리’ 등 다채로운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전통 기법에 독창적인 색채가 어우러진 저만의 작품 활동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싶어요. 전시회에 오셔서 차분하고 은은한 감동을 느끼고, 위로를 받고 가신다는 분들이 많았어요. 앞으로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 전통민화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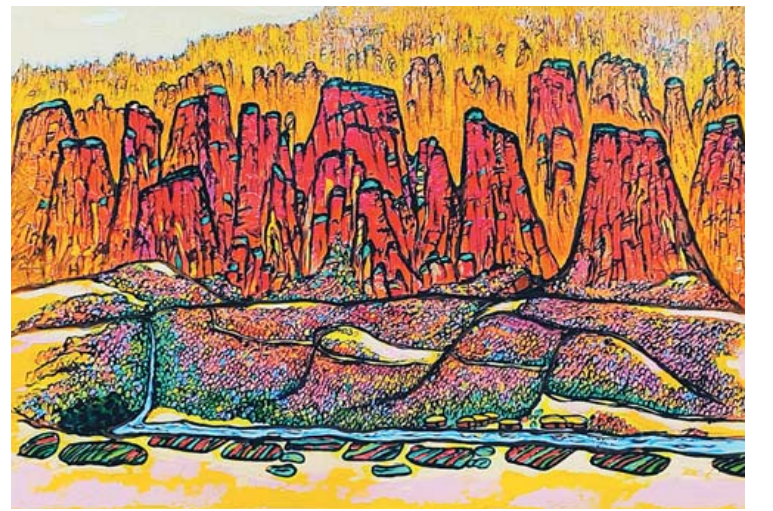


최숙의 작 '양류관음도'

<갤러리 생각상자 제공>

전시는 오는 19일까지다.

한편, 최숙의 작가는 전남대 사범대학 미술교육과를 졸업해 미술교사로 38년간 재직했다. 2018년 전통채색화 민화분과 신설 기념 전시회 이후 영·호남교류전, 전통채색화협회 회원전, 서울국제아트페스티벌 등에 참가했다. 현재는 한국미협회원, 채담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아트스튜디오 작업실을 운영하고 있다. /최정진기자



노의용작 '금강산'

아름다웠던 상상의 금강산

노의용의 캐비닛산채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애국가를 부르고 금강산 ‘일만 이천 봉’ 노래를 부를 때마다 나의 머리 속에 선 상상의 나라가 펼쳐졌다. 그 때부터다. 가슴 구석구석에 많은 금강산이 그려졌다. 얼마나 아름다울까, 황금으로 만들었을까, 보석으로 만들었을까, 하나님께서 만든 작품 중 가장 아름다운 작품일까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상상력이 마구마구 펼쳐지곤 했다. 저 구름 넘어 천사의 나라 만큼 아름답고 사랑이 넘치는 곳일까.

사실, 초등학교 시절부터 그림을 좀 그린다고 했다. 그래서 반공 포스터를 정말 많이 그렸었다. 북한 사람들은 괴기스럽고 잔인하다는 생각이 아직 남아있는 데다가 반공주의에 철두철미했던 나는 아름다움과 괴기스러운 환경이라는 극과 극을 상상하며 금강산으로 향했던 기억이 있다. 어렵사리 칠보산을 거치고 묘향산을 지나 금강산에 다다랐다. 기쁨과 떨리는 가슴을 가득 안은 채였다. 칠보도 묘향이도 금강이도 모두 아무 말이 없었다. 그리고 생각과는 다르게 정말 삭막하고 냉정한 모습들이었다.

아름다운 계곡 산봉우리는 장관이라 할 수 있으나 그저 풍경일 뿐이었다. 살아 숨을 쉬는 온기는 어디서고간에 느낄 수가 없었다. 무엇인가 모를 허전함을 뒤로하고 돌아오는 길은 참으로 외로웠다.

<노의용 미술관장, 전 호남대 교수>

문형식이 들려주는 ‘영화 속 숨은 음악 이야기’

‘영화는 끝나도...’ 오는 14일 7번째 빛고을 렉처콘서트

광주문화재단은 14일 오후 7시30분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에서 DJ 겸 프로듀서 문형식을 초청, 올해 일곱 번째 빛고을 렉처콘서트를 연다.

‘영화는 끝나도 음악은 남아 있다’가 주제인 이번 콘서트는 ▲가을에 만나는 인기 있는 영화음악의 세계 ▲영화 속에서 차지하는 영화음악의 비중 ▲한국인이 좋아하는 영화음악 베스트 ▲영화와 영화음악을 통한 소통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콘서트에서는 1999년 당시 KBS골든 팜스에서 청취자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영화음악 베스트’로 선정된 1위부터 10위까지의 곡을 소개한다.

그 시절 영화와 음악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뮤직비디오를 보며 함께 회상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번 콘서트는 가을밤 시민들이 지난 추억의 향수를 느끼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콘서트를 진행하는 문형식 DJ

겸 프로듀서는 현재 CBS음악 FM ‘12시에 만나요’ DJ·프로듀서로 활동하고 있다.

광주MBC라디오 별이빛나는밤 DJ·프로듀서, KCTV광주방송 편성제작팀장, 동강대학교 광고홍보학과 외래교수, TBN광주교통방송 DJ, 라디오강진 DJ·프로듀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따라 관람 인원은 선착순 50명이다. 공연장 출입 시 발열 등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마스크



DJ 겸 프로듀서 문형식. <광주문화재단 제공>

크 미착용 시 관람이 제한된다.

입장료는 무료이며 8세 이상 관람 가능하고 관람 신청은 7일부터 전화로 사전 예약할 수 있다. 사전예약 및 문의 062-670-7926. /최정진기자

BTS 리더 RM, 도립미술관 방문

공식 트위터에 사진 공개 눈길

전남도립미술관의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 고귀한 시간, 위대한 선물’ 전시회에 그를 방탄소년단(BTS) 리더 RM(본명 김남준)이 다녀가 화제다.

11일 도립미술관에 따르면 RM은 지난 5일 전남도립미술관 건물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을 방탄소년단 공식 트위터에 올렸다. <사진>

미술 애호가인 RM은 ‘전시장 투어’로 전국 방방곡곡의 미술관을 찾으며 김환기, 유영국 화백의 작품을 관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9월부터 전시한 도립미술관의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에도 모습을 드러냈다.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은 개막 첫 주



말에만 2천명이 넘는 관람객을 기록했고 각종 기관으로부터 단체 관람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전시는 오는 11월7일까지다. 개관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입장료는 1천원이며 전남도민은 50% 할인된다. /김재정기자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 늘푸른수목장의 장점 ■

- 1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2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3 재계약이 필요없이 영구사용 가능합니다.
- 4 온 가족이 산산처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국 3대 명당으로 꼽히는 보성을 아십니까?
그 곳에 수목장이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이장부터 안치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푸른수목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수목장·자연장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062) 412-6183